이화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인문계열 I

이딧 님의 이화여자대학교 논술 보고서



● 잘한 곳 9 ● 독해 8 ● 쓰기 4

점수
72 / 100

문항
3문항



편지

안녕. 이딧아. 선생님은 지금 수능을 앞두고 빈 교실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

교실에는 수능 마치고 돌아오면 제자들에게 나눠줄 시험지들이 쌓여 있단다.

제자들이. 그리고 이딧이가. 부디 수능장에서 그동안 고생했던 만큼 실수 없이 시험을 잘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구나. 선생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라이딧에 선생님이 지난 20년간 쌓아온 모든 논술 합격의 노하우를 쏟았다고 믿었어. 그래서 일을 마치고 난 날에는 정말 오랜만에 푹 잠을 잘 수 있었어.

그런데 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불현듯 걱정이 되더라.

사실 선생님이 너희에게 모든 걸 알려준 것은 아니었단 생각이 든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고?

사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시험장에 들어가면 결과를 가르는 요소들이 있거든.

그것까지 알려줘야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더라고. 만일에 이딧이와 시험 전날에 만난다면 선생님이 교실에서 꼭 해줬을 법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주도록 할게. 이걸 알고 이화여대 시험장에 들어가야 이딧이가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될테니까.

우선 이화여대는 답안지를 꼭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

선생님의 제자 언니들도 시험장에 다녀오면 유독 답안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일단 지금 미리 보고 가. 이딧아.

바로 이렇게 생겼어.

> 답안지 문제 1 · 답안지 문제 2·3 → 6쪽

천 자 원고지가 아니야. 이딧아. 그래 줄노트 형식이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긴 답안지가 있고 짧은 답안지가 있지?



편지

그걸 보고 당황할 필요가 없어. 교수님께서 분량을 정해두진 않으셨지만 바로 그 길이가 분량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제자들과 같이 써보면 긴 답안지는 대략 900-1000자. 길게는 1200자까지도 들어가.

짧은 답안지는 800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된단다.

그렇지만 글자를 작게 쓰면 글자 수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그럼 글자를 작게 더 많이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절대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이딧아, 두 가지 이유야.

일단 제한 시간이 있어. 그런데 1번 답안지가 길다고 해서 작은 글씨로 꽉꽉 채우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되도록 다 채우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되도록 글자를 좀 평소보다 큼직하게 시원시원하게 써보렴.

원래 글자가 큰 편이면 상관없겠지만 만일에 이딧이 글자 자체가 작고 귀여운 편이라면 적어도 오늘 이화여대 시험장에서만큼은 조금 더 큼직하게 쓰고. 띄어쓰기도 시원시원하게 해주는 게 유리할 거야.

물론 이화여대는 문항마다 요구하는 핵심 맥락도 중요하고 그에 못지않게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핵심 키워드들도 매우 섬세하게 꽉꽉 채우는 편이 좋아서 쓸 내용이 정말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딧아. 너무 글자 수 걱정하지 말고. 정말 충분히 써줘. 대신에! 문장을 그대로 베끼려 하거나. 정말 중요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막 가져다 쓰기 시작하면 교수님이 이딧이가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오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꼼꼼하게 활용하지만, 정말 중요해 보이는 것들로만 구성을 하는 건 중요해.

그동안 선생님이 밤새서 정성껏 만든 라이딧과 연습했던 것 다시 한번 챙겨봐.

시간 운영은 1번을 45분 정도. 2번을 25분. 3번을 25분 안에 마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좋을 거야.



편지

그렇게 되어도 5분이 남지? 정작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남지 않게 될 수도 있어. 이화여대는 워낙에 읽어야 할 것도 써야 할 것도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딧아. 시험장에서 시간이 빠듯하게 느껴진다고 너무 긴장하거나 겁을 먹지 마. 잘 하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이딧이가 교수님들이 숨겨놓은 중요한 메시지들을 샅샅이 꼼꼼하게 잘 찾아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니까.

이화여대는 유독 제자 언니들이 시험장에서 3번을 백지로 내는 사람들을 봤단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 학교야. 아무래도 시간이 빠듯하다는 걸 거야.

그러니까 이딧아. 꼭 이걸 기억해. 1번을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이미 시간이 45분이 넘어가고 있다면 좀 서둘러서 마무리해야 할 거야.

간혹 연습할 때에는 그러지 않다가 시험장에 가서는 갑자기 너무 잘 쓰고 싶어서 한 자 한 자 정성껏 쓰다가 시간을 다 날려버렸단 이야기가 들려온단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이화여대는 캠퍼스가 얼마나 예쁘니? 아마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가 아닐까 생각해. 게다가 훌륭한 선배들도 정말 많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학교이지.

선생님은 이딧이가 시험장에서 충분히 실력을 발휘해서 시험장에서 걸어 나올 때. 그 예쁜 캠퍼스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니. 이화여대 재학생이 되어서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좋은 책도 많이 읽고.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하느라 가끔은 졸기도 하면서. 그렇게 꿈을 키워가는 이딧이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아니. 상상이 아닐 거야. 이딧아. 반드시 현실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딧아. 우리 남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을 아껴서 또 보도록 하자.



편지

무엇을 더 잘해야 하는지 다시 점검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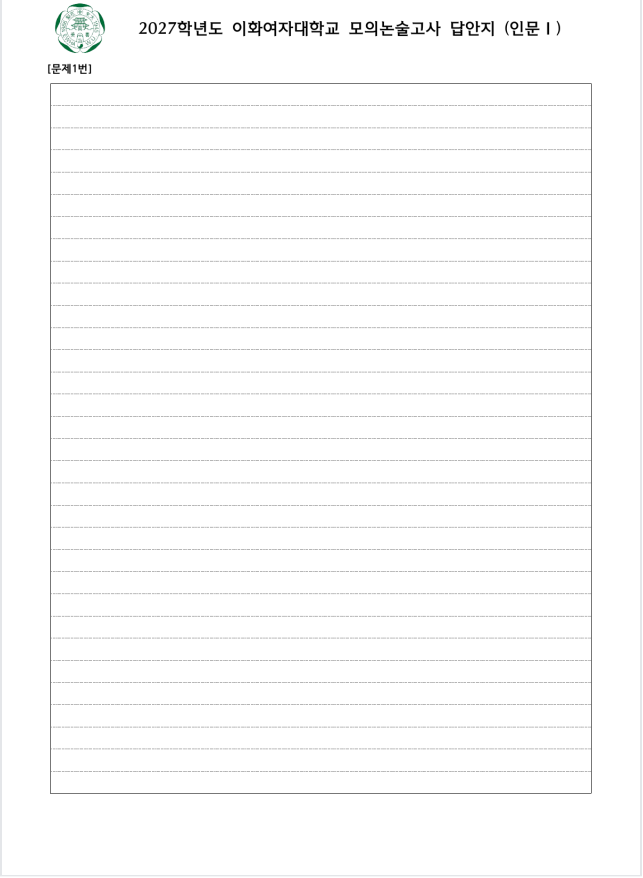
시험장에 가기 전에 중요한 것들 노트필기해서 꼭 챙겨가자. 그리고 시험 시작 전 1시간 동안 정독해 보자.

그럼 이딧아 꼭 합격 소식 들려주렴.

너를 응원하는 한 사람. 영샘이.

문제 1 문제 2 문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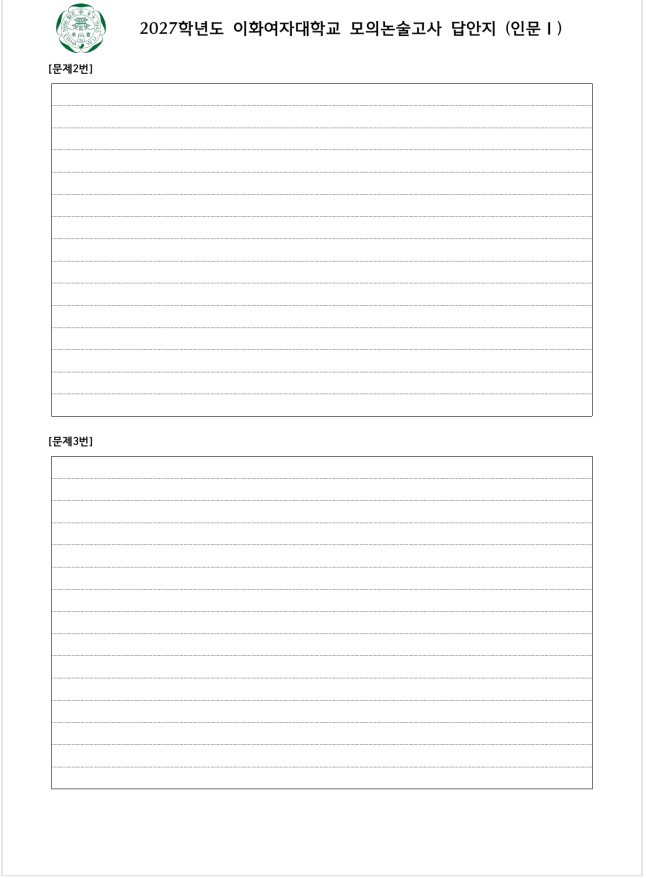
편지 · 그림


2027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답안지 (인문 I)

[문제1번]

문제 1 문제 2 문제 3

편지 · 그림



2027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답안지 (인문 I)

[문제2번]

[문제3번]



시험날 한눈에

11월 28일 토요일, 이화여자대학교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시험 시간	100분 동안 세 문제를 풀어요. 문제마다 세부 문제가 있어요.
인문I	인문과학대학(영어영문학부 포함)은 오전 08:30~12:10 시간대에 봐요.
인문II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 의류산업학과, 국제사무학과는 오후 14:20~18:00 시간대에 봐요. 스크랜튼학부는 원서접수 때 고른 유형 시간에 봐요.
고사장	고사건물과 입실 완료 시각은 11월 24일 화요일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공지돼요.

가져갈 것

- ☐ 인쇄한 수험표
- ☐ 신분증
- ☐ 아날로그 시계
- ☐ 검은색 펜
- ☐ 연필이나 샤프
- ☐ 지우개, 수정테이프

-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답안지에 쓸 때 지킬 것

- 답안은 검은색 펜이나 연필(샤프)로만 써요. 답안지와 문제지의 인적 사항은 검은색 펜으로 써요.
- 수정테이프와 교정부호를 쓸 수 있어요. 새 답안지는 시험 끝나기 30분 전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 초안은 문제지 여백에 써요. 답안지 여백에는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아요.
- 답안과 관계없는 표시(수험번호, 이름, 별명, 기호 등)를 하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 입실 완료 시각이 지나면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간 뒤에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나올 수 없어요.
- 휴대폰, 스마트워치 같은 전자기기는 시험 전에 감독위원에게 내요. 내지 않으면 부정행위예요.

입학처에서 유의사항 확인
admission.ewha.ac.kr/

2027학년도 모집요강·논술고사 안내와 2026학년도 수험생 유의사항을 토대로 적었어요. 2027학년도 유의사항은 11월 24일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문제 1 문제 2 문제 3

답안지

2027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답안지 (인문 I)

[문제1번]


문제 1


문제 2


문제 3

답안지



2027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답안지 (인문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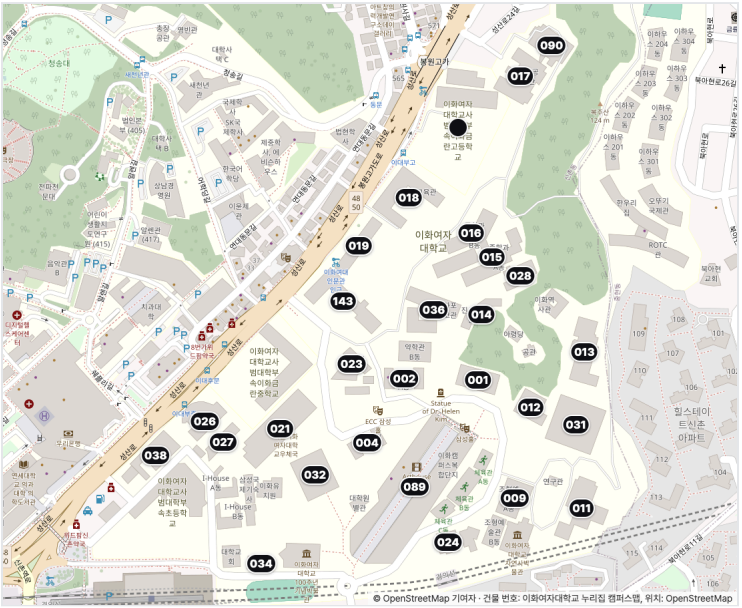
[문제2번]

[문제3번]

문제 1 문제 2 문제 3

캠퍼스 지도

고사장 건물을 미리 찾아 두세요



001 본관
143 학관
036 이화·포스코관
019 인문관
018 교육관 A동
014 진선미관
015 종합과학관 A동
016 종합과학관 B동
028 종합과학관 C동
017 아산공학관
090 신공학관
013 법학관
012 헬렌관
011 음악관
009 조형예술관 A동
031 100주년기념중앙도서관
004 대학원관
002 약학관 A동
023 학생문화관
024 입학관
089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
032 대강당
021 생활환경관
034 국제교육관
026 이화·삼성교육문화관
027 이화·SK텔레콤관
038 이화·신세계관
이대부고

건물 번호는 이화여자대학교 누리집 캠퍼스맵을, 위치는 OpenStreetMap을 따랐어요. 이대부고는 캠퍼스 밖에 있어요. 내 고사건물은 11월 24일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에서 확인해요.



차례

표지 1

시작하며

편지 2
시험날 한눈에 8
답안지 9
캠퍼스 지도 11
첨삭 색 읽는 법 13

문제별 첨삭

내 답안 · 문제 1 14
첨삭 메모 · 문제 1 15
무엇을 묻는 문제였나 · 문제 1 17
공식 채점 기준과 내 답안 · 문제 1 19
분량·표현과 내 답안 · 문제 1 21
점수와 고칠 문장 · 문제 1 22
내 답안 · 문제 2 23
첨삭 메모 · 문제 2 24
무엇을 묻는 문제였나 · 문제 2 26
공식 채점 기준과 내 답안 · 문제 2 27
분량·표현과 내 답안 · 문제 2 29
점수와 고칠 문장 · 문제 2 30
내 답안 · 문제 3 31
첨삭 메모 · 문제 3 32
무엇을 묻는 문제였나 · 문제 3 34
공식 채점 기준과 내 답안 · 문제 3 35
분량·표현과 내 답안 · 문제 3 37
점수와 고칠 문장 · 문제 3 38

나의 결과

점수 한눈에 39

예시답안

라이딧 예시답안 · 문제 1 40
라이딧 예시답안 · 문제 2 41
라이딧 예시답안 · 문제 3 42

답안지 쪽은 가로로 돌려 보세요.



첨삭 색 읽는 법

첨삭 표시는 세 가지 색이에요

밑줄 o.k[1]

잘한 곳 · 9

점수를 받은 곳이에요. 다음 시험에서도 그대로 쓰세요.

물결 밑줄[1]

독해 · 8

제시문·자료·논제에 있는 것을 놓치거나 잘못 읽은 곳이에요. 다시 읽으면 고칠 수 있어요.

밑줄[1]

쓰기 · 4

읽은 것을 답안 문장으로 옮기다 생긴 문제예요. 다시 쓰면 고칠 수 있어요.

˅ 표시는 '여기에 이 내용을 넣으세요'라는 뜻입니다. 작은 숫자는 메모 번호입니다.

내 답안 · 문제 1 23 / 30 감점한 표시 2곳

● 잘한 곳 ● 독해 ● 쓰기

[문제 1]

띄어쓰기 포함 675자

[가]의 예술가와 [나]의 작가는 모두 사람들이 익숙함 때문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여 인식의 한계를 넓힌다는 점에서 같다 o.k[1]. 그러나 두 사람이 한계를 넘어서는 방식은 다르다.

[가]에 따르면 인간은 '삶에의 주의'에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하여 지각한다. 그래서 사물을 범주로 묶어 보고, 개별 사물이 가진 고유한 모습은 지워진다.v[2] 예술가는 주의의 전향을 꾀하여 o.k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놓친 것들을 포착한다. 예술가가 보여 주는 세계는 허구가 아니라 원래 있었지만 배제되어진 실재이다.

[나]의 수빈은 SF 문학을 '인지적 낯섦'의 문학이라고 규정한다. 인지는 익숙한 것이고 낯섦은 경험하지 못한 것이므로 보통 둘은 반대된다. SF 작가는 현실과 상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여[3] 독자에게 낯섦을 준다. 독자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 같은 낯선 장치를 보면서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다[4].

두 행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예술가는 현실에 이미 있지만 지각에서 빠진 것을 찾아내는 반면, SF 작가는 현실에 없는 세계를 새로 만들어 낸다. 즉 예술가의 행위는 발견이고 작가의 행위는 고안이다. o.k[5] 또한 예술가는 현실의 이면으로 들어가 감각이 놓친 것을 되살리고, 작가는 낯선 세계를 거쳐 현실을 낯설게 한다. 이처럼 두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를 v넓힐수 있다.



문제 1 · 첨삭 메모 1–4

1

● 잘한 곳

모두 사람들이 익숙함 때문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여 인식의 한계를 넓힌다는 점에서 같다

좋아요! 두 행위가 같은 점을 첫 문장에 세웠어요. 비교 항목의 첫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2

● 독해 감점

˅ 넣을 자리

인식 단계의 '추상화'와 '일반화'가 빠졌어요. 지각의 범주화만 쓰면 [가]가 말한 왜곡의 절반만 쓴 거예요.

공식 채점 기준표는 [가]의 견해로 지각에서의 '범주화'와 인식에서의 '추상화', '일반화'에 의한 왜곡을 함께 요구해요. 답안은 범주로 묶어 보는 지각만 쓰고, 개념으로 생각할 때 개체의 차이와 특이성이 빠지거나 변형된다는 인식 쪽 왜곡을 쓰지 않았어요.
'인식에서는 추상화와 일반화를 거치며 개체의 차이와 특이성이 배제되거나 변형된다.' 한 문장을 이어 쓰면 채워져요.

3

● 독해 감점

SF 작가는 현실과 상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여

[나]의 SF는 현실과 상관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현재 과학 기술로 이해할 수 있는 경험적 환경을 바탕으로, 현실에 대안이 되는 틀을 상상해요.

수빈이 말한 '인지'는 SF가 독자에게 익숙한 현실, 곧 지금의 과학 기술로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 발을 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F는 인지와 낯섦을 함께 갖춰요. '현실과 상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라고 쓰면 인지 쪽이 사라져, SF 작가가 인지와 낯섦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기준표 요소와 반대가 돼요.
'SF 작가는 모두에게 익숙한 현실을 바탕으로 그에 대안이 되는 상상의 틀을 고안하여'로 고쳐 써요.

4

● 쓰기 감점 없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 **볼 수 있게 된다**

'~것 같다'는 빼요. 제시문이 말한 내용은 단정해서 써요.



문제 1 · 첨삭 메모 5

5

● **잘한 곳**

즉 예술가의 행위는 발견이고 작가의 행위는 고안이다.

좋아요! 차이를 '발견'과 '고안' 한 쌍으로 압축했어요.



문제 1 · 무엇을 묻는 문제였나

두 사람이 인식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는지 견주는 문제예요

논제는 이랬어요.

> 제시문 [가]의 '예술가'의 행위와 제시문 [나]의 '작가'의 행위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30점]

할 일은 세 가지예요.

1. [가]가 예술가의 행위를 어떻게 보는지 쓰는 것
2. [나]가 SF 작가의 행위를 어떻게 보는지 쓰는 것
3. 두 행위의 같은 점 위에서 다른 점을 밝히는 것

[가]에 따르면 인간은 '삶에의 주의'에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받아들여요. 지각할 때는 사물을 범주로 묶어 개별자의 고유한 질감을 지우고, 생각할 때는 추상화와 일반화를 거치며 개체의 차이를 빼거나 바꿔요. 예술가는 주의의 전향을 꾀해 이렇게 빠진 것들을 다시 붙잡아요.

[나]의 수빈은 SF 문학을 '인지적 낯섦'의 문학이라고 해요. 인지는 경험으로 아는 익숙함이고 낯섦은 경험하지 못한 데서 오니 보통은 반대예요. SF 작가는 지금의 과학 기술로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그에 대안이 되는 상상의 틀을 고안해 둘을 함께 갖춰요. 그 낯섦이 독자에게 당연하던 현실을 낯설게 보이게 해요.

비교는 같은 점 위에서 다른 점을 밝히는 일이에요. 두 사람은 모두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를 넓혀요. 다른 점은 예술가가 이미 경험한 것 가운데 빠진 것에 주목하고, 작가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상상의 세계로 현실을 다르게 보게 한다는 데 있어요.



문제 1 · 무엇을 묻는 문제였나

	[가] 예술가	[나] SF 작가
무엇을 다루나	현실에 있지만 지각에서 빠진 것	현실에 없는 상상의 세계
어떻게 하나	주의의 전향으로 빠진 것을 붙잡음	익숙한 현실 위에 대안의 틀을 고안함
독자에게 생기는 일	지각의 폭이 넓어짐	현실을 보는 시각이 바뀜



문제 1 · 공식 채점 기준과 내 답안

비교의 뼈대는 섰고,
두 제시문의 핵심 개념이 한 군데씩 비었어요

공식 채점 기준표는 네 항목이에요. ① 예술가의 행위에 대한 [가]의 견해(8점), ② 작가의 행위에 대한 [나]의 견해(8점), ③ 두 행위의 비교(10점), ④ 형식의 완결성(4점)이에요.

① 예술가의 행위

'삶에의 주의'에 따른 취사선택과 지각의 범주화, 그리고 '주의의 전향을 꾀하여'까지 정확히 썼어요. 그런데 인식에서의 추상화와 일반화가 빠졌어요. 기준표는 범주화와 추상화·일반화를 함께 왜곡의 예로 들어요. 8점 중 6점이에요.

② SF 작가의 행위

'인지적 낯섦'과 인지·낯섦이 보통 반대라는 점은 썼어요. 그런데 '현실과 상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라고 써서 SF가 익숙한 현실에 발을 딛는다는 인지 쪽을 지웠어요. SF 작가가 인지와 낯섦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요소가 반대로 읽혔어요. 8점 중 5점이에요.

③ 두 행위의 비교

첫 문장에서 인식의 한계를 넓힌다는 같은 점을 세웠고, '발견'과 '고안', '현실의 이면'과 '낯선 세계를 거쳐'로 다른 점을 두 겹으로 밝혔어요. 작가가 현실을 보는 다른 시각을 준다는 효과까지 한 번 더 짚으면 만점이에요. 10점 중 9점이에요.



문제 1 · 공식 채점 기준과 내 답안

항목	내 답안	점수
① 예술가	범주화와 주의의 전향은 썼고, 추상화·일반화는 빠졌어요.	6 / 8
② SF 작가	인지적 낯섦은 썼지만, SF를 현실과 상관없는 세계로 읽었어요.	5 / 8
③ 비교	같은 점과 두 겹의 다른 점을 세웠어요.	9 / 10
④ 형식	구조는 완결, 표현 세 곳을 고쳐요.	3 / 4



문제 1 · 분량·표현과 내 답안

구조는 네 단락으로 반듯하고, 고칠 표현은 세 곳이에요

분량 배분

공식 채점 기준표의 ④ 형식의 완결성은 서술 구조, 어휘와 문장의 표현력, 분량 배분을 봐요. 내 답안은 띄어쓰기를 빼고 511자이고, 같은 점, [가], [나], 다른 점의 네 단락으로 나눠 구조가 분명해요. [가]와 [나] 단락의 길이도 비슷해서 배분이 고르게 됐어요.

표현

고칠 곳은 세 군데예요.

- '배제되어진'은 '배제되다'에 '-어지다'를 겹쳐 쓴 이중 피동이에요. '배제된'으로 써요.
-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다'는 제시문의 내용을 추측처럼 흐려요. '볼 수 있게 된다'로 단정해요.
- '넓힐수'는 '넓힐 수'로 띄어 써요. '수'는 의존 명사예요.



문제 1 · 점수와 고칠 문장

23점이에요.
두 문장을 고치면 28점까지 올라가요

30점 중 23점이에요. 비교의 뼈대는 이미 섰으니, [가]의 추상화·일반화와 [나]의 인지 쪽을 채우는 두 문장만 고치면 ①과 ②가 거의 만점이 돼요.

● 독해 **[가]의 인식 단계 왜곡 넣기**

~~그래서 사물을 범주로 묶어 보고, 개별 사물이 가진 고유한 모습은 지워진다.~~

> 그래서 지각에서는 사물을 범주로 묶어 개별 사물의 고유한 모습을 지우고, 인식에서는 추상화와 일반화를 거치며 개체의 차이와 특이성을 배제하거나 변형한다.

기준표는 범주화와 추상화·일반화를 함께 왜곡의 예로 들어요. 이 한 문장으로 ①이 채워져요.

● 독해 **SF의 '인지' 쪽 바로잡기**

~~SF 작가는 현실과 상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여 독자에게 낯섦을 준다.~~

> SF 작가는 지금의 과학 기술로 이해할 수 있는 익숙한 현실을 바탕으로, 그에 대안이 되는 상상의 틀을 고안하여 독자에게 낯섦을 준다.

인지와 낯섦을 함께 갖춰야 '인지적 낯섦'이에요.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②가 맞게 읽혀요.

내 답안 · 문제 2 21 / 30 감점한 표시 2곳

● 잘한 곳 ● 독해 ● 쓰기

[문제 2]

띄어쓰기 포함 690자

[다]에서 하먼은 객체를 구성 요소나 효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것은 지식이고, 어느 쪽으로도 환원하지 않고 객체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본다 o.k[1]. 하먼에 따르면 예술의 아름다움은 은유에서 잘 나타난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처럼 직설적인 표현[2]은 우리가 이미 아는 성질만 전달하지만, "교사는 양초이다."라는 은유는 교사에게서 떠올리지 않던 양초의 성질을 교사와 결합시킨다.v[3] 독자는 그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라]의 [A]에서 화자는 뼛속을 드나드는 바람을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임금의 숨결이며 기침 소리"라고 느끼고, "내 어깨에는 적이 들어와 살았고, 허리와 무릎에는 임금이 들어와 살았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기 몸을 "적과 임금이 동거하는 내 몸" o.k[4]이라고 부른다. 이 표현들은 화자의 상처를 총알이나 매질 같은 원인으로 설명하지 않고, 적과 임금이 몸 안에 산다는 은유로 나타낸다.

독자는 이 은유의 의미를 유추하게 된다. 화자가 싸워야 하는 적과 화자가 섬기는 임금이 한 몸에 함께 산다는 것은 모순이다. 화자를 매질한 것은 임금이었고, 화자를 살린 것은 적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소문이었다 o.k. 이런 모순 속에서 독자는 화자가 몸과 마음에 함께 지고 있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v[5] 따라서 [A]의 은유는 화자의 비극을 직서적인 표현보다 더 아름답고 강렬하게 전달한다[6].



문제 2 · 첨삭 메모 1–4

1

● 잘한 곳

어느 쪽으로도 환원하지 않고 객체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본다

좋아요! 지식과 예술의 구분을 하먼의 말 그대로 잡았어요.

2

● 쓰기 감점 없음

직설적인 표현 → **직서적인 표현**

[다]의 개념어는 '직서적'이에요. 개념어는 제시문에 나온 말 그대로 써요.

3

● 독해 **감점**

˅ 넣을 자리

은유가 만드는 '긴장'이 빠졌어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이 미적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써야 해요.

공식 채점 기준표는 하먼의 은유 이론에서 '은유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으로 미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요구해요. 답안은 양초의 성질이 교사와 결합한다는 데서 멈춰, 그 결합이 왜 아름다움을 낳는지가 비어 있어요.
'이 결합으로 환원할 수도 지각할 수도 없는 객체가 생겨나고, 독자는 객체와 성질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를 이어 써요.

4

● 잘한 곳

"적과 임금이 동거하는 내 몸"

좋아요! 기준표가 든 은유 표현 세 개를 모두 직접 꺼내 썼어요.



문제 2 · 첨삭 메모 5–6

5

● 독해 감점

˅ 넣을 자리

‘또 다른 전쟁터’가 빠졌어요. 화자의 몸이 왜구와 내부의 적인 임금이 함께 사는 또 다른 전쟁터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학교 채점 기준은 ‘내’ 몸의 상처가 적들이 남긴 고통의 기억이면서, 실제의 적인 왜구와 내부의 적인 임금이 살고 있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된다고 봐요. 답안은 모순과 고통까지는 썼지만, 몸 자체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곳이라는 해석이 없어서 미적 효과 항목의 가장 큰 요소를 놓쳤어요.
‘그래서 화자의 몸은 왜구와 내부의 적인 임금이 함께 사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된다.’를 넣어요.

6

● 쓰기 감점 없음

더 아름답고 강렬하게 전달한다

‘아름답고 강렬하게’는 평가어만 남았어요. 신체적·정신적 모순성과 비극성을 보여 준다고 구체적으로 써요.



문제 2 · 무엇을 묻는 문제였나

하먼의 은유 이론으로 [A]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문제예요

논제는 이랬어요.

> 제시문 [다]의 관점으로, 제시문 [라]의 [A]의 '미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할 일은 세 가지예요.

1 [다]의 하먼이 지식과 예술, 은유를 어떻게 보는지 요약하는 것
2 [A]의 은유적 표현을 찾아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
3 그 은유가 독자에게 어떤 미적 효과를 주는지 [다]의 말로 설명하는 것

하먼은 객체를 내부 구성이나 외부 효과로 환원해 설명하는 것을 지식, 어느 쪽으로도 환원하지 않고 객체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예술로 봐요. 예술의 아름다움은 은유로 잘 나타나요. 은유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에 긴장을 만들고, 독자는 그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껴요.

[A]에서 화자는 바람을 "임금의 숨결이며 기침 소리"로 느끼고, 어깨에는 적이, 허리와 무릎에는 임금이 들어와 산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적과 임금이 동거하는 내 몸"이라고 불러요. 상처는 왜구의 적탄과 임금의 형장 때문에 생겼어요. 죽여야 할 적이 나를 살리고, 지켜야 했던 임금이 나를 죽이려 했으니 모순이에요.

학교 채점 기준은 이 몸이 왜구와 내부의 적인 임금이 함께 사는 '또 다른 전쟁터'라는 점, 그리고 [A]의 은유가 화자의 신체적·정신적 모순성과 비극성을 예술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을 핵심으로 봐요.



문제 2 · 공식 채점 기준과 내 답안

은유 표현은 다 찾았고, ‘긴장’과 ‘또 다른 전쟁터’가 비었어요

공식 채점 기준표는 네 항목이에요. ① 하먼의 은유 이론 요약(10점), ② [A]의 은유적 표현(2점), ③ [A]의 미적 효과와 내용 이해(15점), ④ 형식의 완결성(5점)이에요.

① 하먼의 은유 이론

지식과 예술의 구분, 양초 은유, 독자가 의미를 찾으며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점까지 썼어요. 은유가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으로 미적 효과를 낸다는 핵심이 빠졌어요. 10점 중 8점이에요.

② 은유적 표현

기준표가 든 세 표현, 곧 임금의 숨결과 기침 소리, 어깨의 적과 허리·무릎의 임금, ‘적과 임금이 동거하는 내 몸’을 모두 직접 꺼냈어요. 2점 만점이에요.

③ 미적 효과와 내용 이해

적과 임금이 한 몸에 산다는 모순, 매질한 것은 임금이고 살린 것은 적이 온다는 소문이었다는 점까지 정확히 읽었어요. 그런데 화자의 몸이 왜구와 임금이 함께 사는 또 다른 전쟁터라는 해석이 없고, 마지막 문장은 ‘아름답고 강렬하게’라는 평가어로 끝나 모순성과 비극성을 보여 준다는 효과가 흐려졌어요. 15점 중 7점이에요.



문제 2 · 공식 채점 기준과 내 답안

항목	내 답안	점수
① 하먼 요약	지식·예술 구분과 양초 은유는 썼고, 긴장이 빠졌어요.	8 / 10
② 은유 표현	세 표현을 모두 인용했어요.	2 / 2
③ 미적 효과	모순은 읽었고, 또 다른 전쟁터와 비극성이 빠졌어요.	7 / 15
④ 형식	세 단락 구조는 완결, 개념어 하나를 고쳐요.	4 / 5



문제 2 · 분량·표현과 내 답안

인용은 정확하고,
개념어는 제시문 그대로 써요

분량 배분

내 답안은 띄어쓰기를 빼고 528자예요. [다] 요약, [A]의 표현, 미적 효과의 세 단락이에요. 배점이 가장 큰 ③(15점)을 다루는 마지막 단락이 가장 짧아요. 둘째 단락의 긴 인용을 줄이고 셋째 단락에 또 다른 전쟁터와 비극성을 넣어 무게를 옮겨요.

표현

- '직설적인 표현'은 '직서적인 표현'으로 써요. 하먼이 지식의 방식으로 든 말은 '직서적'이에요.
- '결합시킨다'는 '결합한다'로 써요. 시킬 대상이 따로 없으니 사동을 쓰지 않아요.
- '더 아름답고 강렬하게 전달한다'는 평가어만 남았어요. 무엇이 아름다운지, 곧 모순성과 비극성을 보여준다고 써요.



문제 2 · 점수와 고칠 문장

21점이에요.
‘또 다른 전쟁터’ 한 문장이 가장 커요

30점 중 21점이에요. 은유 표현을 정확히 찾았으니, 하먼의 ‘긴장’과 [A]의 ‘또 다른 전쟁터’를 채우면 ①과 ③이 크게 올라가요.

● 독해 **화자의 몸을 ‘또 다른 전쟁터’로 해석하기**

~~이런 모순 속에서 독자는 화자가 몸과 마음에 함께 지고 있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

> 그래서 화자의 몸은 왜구와 내부의 적인 임금이 함께 사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되고, 독자는 전쟁도 임금과의 갈등도 끝나지 않은 화자의 신체적·정신적 모순성과 비극성을 느끼게 된다.

학교 채점 기준이 미적 효과의 핵심으로 든 해석이에요. 이 문장으로 ③의 가장 큰 요소가 채워져요.

● 독해 **은유가 낳는 ‘긴장’ 넣기**

~~“교사는 양초이다.”라는 은유는 교사에게서 떠올리지 않던 양초의 성질을 교사와 결합시킨다.~~

> “교사는 양초이다.”라는 은유는 교사에게서 떠올리지 않던 양초의 성질을 교사와 결합하여,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에 긴장을 만든다.

기준표가 하먼 요약에서 요구한 ‘긴장’이에요. ‘결합시킨다’도 함께 고쳐져요.

내 답안 · 문제 3 28 / 40 감점한 표시 4곳

● 잘한 곳 ● 독해 ● 쓰기

[문제 3]

띄어쓰기 포함 1,020자

(1)

제시문 [바]에 따르면 AI 이전의 정보 기술은 인간이 시키는 일을 하는 도구였다. 그러나 AI는 인간의 지식에 역설적인 영향을 끼친다. AI는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지만, 이 능력 때문에 정보가 조작되거나 오류가 생기고 현실이 왜곡될 수 있다. AI는 사용자의 선호에 맞추어 정보를 골라 보여 주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이용하기도 한다.[v1] 결국 인간에게 맞추려는 AI가 오히려 인간의 지식을 변질시킨다는 것이 [바]의 경고이다. o.k[2]

[마]의 플로리디는 인간과 기술이 모두 인포스피어 안의 정보적 존재자라고 본다. 정보적 존재자는 행위를 하는 행위자와 행위를 받는 피동자로 나뉘고, 피동자에는 생물뿐 아니라 기술과 인공물도 포함된다. 그리고 모든 정보적 존재자는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이 개념으로 [바]를 보면 인간과 AI는 주인과 도구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정보적 존재자이다 o.k. 인간은 AI를 만들고 사용하는 행위자이고, AI는 인간이 만든 피동자이다.[3] 그러므로 인간은 AI를 함부로 다루지 말고 AI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4]

(2)

[마]의 피동자 중심 윤리학에 따르면 인포스피어 안의 모든 존재자는 정보적 존재라는 점에서 동등하다.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로서 내재적 가치를 가지며, 이 윤리학은 행위자가 아니라 피동자의 관점에서 도덕을 설명한다.

[사]의 나그네는 개가 몽둥이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가 불에 타 죽는 것은 미물이라서 큰 짐승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나그네의 견해는 피동자 중심 윤리학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첫째, 나그네는 겉모습에 따라 생명을 차별한다. 피와 기운을 가진 생명체는 모두 살고 싶어 하고 죽기를 싫어한다는 점에서 같은데 o.k[5], 나그네는 크기에 따라 개와 이의 죽음을 다르게 본다. 둘째, 나그네는 개와 이가 그 자체로 가지는 내재적 가치를 보지 못한다.[v6] 나그네가 개의 죽음에 마음 아파한 것은 결국 자기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그네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7]



문제 3 · 첨삭 메모 1–3

1

● 독해 감점

˅ 넣을 자리

'편견 증폭'이 빠졌어요. AI가 기술적으로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도 내재된 편견을 증폭할 수 있다는 점은 [바] 요약의 필수 요소예요.

공식 채점 기준표는 [바]의 요약에 'AI는 인간의 욕망에 맞추도록 제작되어 인간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넣었어요. 감정을 이용한다는 내용은 썼지만, 통제 아래에서도 편견이 커진다는 역설은 빠졌어요.

2

● 잘한 곳

결국 인간에게 맞추려는 AI가 오히려 인간의 지식을 변질시킨다는 것이 [바]의 경고이다.

좋아요! 요약을 [바]의 마지막 경고로 정확히 마무리했어요.

3

● 독해 감점

인간은 AI를 만들고 사용하는 행위자이고, AI는 인간이 만든 피동자이다.

한쪽 방향만 썼어요. AI도 왜곡된 정보를 보내는 행위자이고, 인간도 그 정보를 받는 피동자예요.

[마]의 관점을 [바]에 적용하면 인간과 AI는 서로에게 행위자이자 피동자예요. 인간은 AI를 만들고 쓰는 행위자이면서 AI가 왜곡하고 변형한 정보를 받는 피동자이고, AI는 인간의 생산물인 피동자이면서 정보 왜곡과 악용의 행위자예요. 답안은 인간=행위자, AI=피동자로만 써서 '동등하다'는 앞 문장의 근거가 약해졌어요.



문제 3 · 첨삭 메모 4–7

4

● 독해 감점

그러므로 인간은 AI를 함부로 다루지 말고 AI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결론이 [바]의 경고와 이어지지 않아요. [바]의 역설이 두 존재자가 서로 행위자이자 피동자이기 때문에 생긴다는 점으로 맺어요.

[바]가 경고한 것은 AI가 인간의 지식을 변질시킨다는 역설이에요. 결론이 'AI를 존중하자'로 가면 [바]의 문제의식에서 벗어나요. 기준표는 이 역설을 [마]의 관점에서 보아 인간과 AI가 모두 행위자이자 피동자로 동등해지는 사고의 전환에 의미를 두라고 해요.

5

● 잘한 곳

피와 기운을 가진 생명체는 모두 살고 싶어 하고 죽기를 싫어한다는 점에서 같은데

좋아요! [사]의 혈기를 근거로 개와 이가 동등하다는 점을 세웠어요.

6

● 독해 감점

˅ 넣을 자리

피동자가 '책임을 묻는다'는 점이 빠졌어요. 개와 이는 죽임을 받는 피동자로서 행위자인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공식 채점 기준표에서 인간중심 비판은 8점으로 가장 커요. '개'와 '이'가 '죽임' 행위의 피동자로서 행위자인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 유일한 도덕적 행위자로 자처해 온 인간의 위상도 피동자 중심으로 재고된다는 점이 필요해요. 답안은 내재적 가치만 썼어요.

7

● 쓰기 감점 없음

따라서 나그네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결론은 두 비판을 한 문장으로 모아요. '외양에 따른 차별'과 '인간중심적 사고'를 다시 짚어요.



문제 3 · 무엇을 묻는 문제였나

(1)은 요약하고 관계를 논하고, (2)는 나그네를 비판하는 문제예요

논제는 이랬어요.

> ⑴ 제시문 [바]를 한국어로 요약하고, 제시문 [마]의 '정보적 존재자'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인간과 AI의 관계를 논하시오. [20점]
> ⑵ 제시문 [마]에서 설명한 '피동자 중심 윤리학'의 관점을 적용하여 제시문 [사]의 '나그네'의 견해를 비판하시오. [20점]

할 일은 네 가지예요.

1 [바]를 한국어로 요약하는 것
2 [마]의 '정보적 존재자' 개념으로 [바]의 인간과 AI의 관계를 논하는 것
3 [마]의 '피동자 중심 윤리학'을 설명하는 것
4 그 관점으로 [사]의 나그네를 비판하는 것

[바]는 AI가 단순히 인간이 지시한 기능을 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에 역설적인 영향을 준다고 경고해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힘이 조작과 오류, 현실 왜곡을 낳고, 인간의 욕망에 맞추도록 만들어져 인간의 통제 아래에서도 편견을 키울 수 있어요.

[마]의 플로리디에 따르면 인포스피어에서 인간과 기술은 주체와 객체가 아니라 동등한 정보적 존재자예요. 정보적 존재자는 행위를 보내는 행위자와 받는 피동자로 나뉘고, 피동자에는 기술과 인공물도 들어가요. 피동자 중심 윤리학은 모든 존재자가 도덕적 피동자로서 내재적 가치를 가지며, 피동자가 행위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봐요.

[사]의 나그네는 개가 맞아 죽는 것은 마음 아파하면서, 이가 타 죽는 것은 미물의 일이라 견줄 수 없다고 해요. 학교 채점 기준은 이 견해를 외양에 따른 차별과 인간중심적 사고, 두 갈래로 비판하라고 해요.



문제 3 · 공식 채점 기준과 내 답안

요약과 첫째 비판은 정확하고, 관계와 책임이 한쪽만 쓰였어요

(1)은 [바] 요약(6점), 정보적 존재자 개념 이해(4점), [마]와 [바]의 연결(6점), 형식(4점)이에요. (2)는 피동자 중심 윤리학 이해(4점), 외양에 따른 차별 비판(4점), 인간중심적 사고 비판(8점), 형식(4점)이에요.

(1) [바] 요약

역설적 영향, 데이터 처리 능력이 낳는 조작과 왜곡, 인간의 지식을 변질시킨다는 경고까지 썼어요. 통제 아래에서도 편견이 증폭된다는 점이 빠졌어요. 6점 중 5점이에요.

(1) 정보적 존재자와 관계

'주인과 도구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정보적 존재자'라고 관계의 뼈대를 세운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인간은 행위자, AI는 피동자로만 써서, AI가 왜곡된 정보를 보내는 행위자이고 인간이 그 정보를 받는 피동자라는 반대 방향이 없어요. 결론도 'AI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로 가 [바]의 경고에서 벗어났어요. 개념 이해 3점, 연결 3점이에요.

(2) 외양에 따른 차별

[사]의 피와 기운을 근거로 개와 이가 동등하다는 점을 세우고, 나그네가 크기에 따라 죽음을 다르게 본다고 정확히 비판했어요. 4점 만점이에요.

(2) 인간중심적 사고

내재적 가치를 보지 못한다는 점과, 나그네가 결국 자기 마음이 불편했을 뿐이라는 점은 좋아요. 개와 이가 행위자인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과 인간의 위상이 피동자 중심으로 재고된다는 점이 빠졌어요. 8점 중 4점이에요.



문제 3 · 공식 채점 기준과 내 답안

항목	점수
(1) 요약 · 개념 · 연결 · 형식	5 · 3 · 3 · 3 = 14 / 20
(2) 이해 · 외양 · 인간중심 · 형식	3 · 4 · 4 · 3 = 14 / 20



문제 3 · 분량·표현과 내 답안

(1)과 (2)의 분량은 맞고, 결론 문장 두 개를 다시 써요

분량 배분

내 답안은 띄어쓰기를 빼고 777자예요. (1)과 (2)가 각각 20점이고 두 답안의 길이도 비슷해서 배분은 알맞아요. (2)에서 배점이 가장 큰 인간중심 비판(8점)이 두 문장뿐이라, 여기에 책임과 인간의 위상을 한 문장씩 더해요.

표현

- (1)의 마지막 문장 'AI를 함부로 다루지 말고 AI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바]의 경고와 이어지지 않아요. [바]의 역설이 두 존재자가 서로 행위자이자 피동자이기 때문에 생긴다는 문장으로 맺어요.
- (2)의 마지막 문장 '나그네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는 결론의 내용이 없어요. 외양에 따른 차별과 인간중심적 사고, 두 비판을 다시 짚어요.



문제 3 · 점수와 고칠 문장

28점이에요.
관계의 반대 방향을 쓰면 크게 올라요

40점 중 28점이에요. (1)은 인간과 AI가 서로에게 행위자이자 피동자라는 점을, (2)는 피동자가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채우면 두 문항 모두 17점 넘게 올라가요.

● 독해 **(1) 인간과 AI를 서로에게 행위자이자 피동자로 쓰기**

~~인간은 AI를 만들고 사용하는 행위자이고, AI는 인간이 만든 피동자이다.~~

> 인간은 AI를 만들고 사용하는 행위자인 동시에 AI가 왜곡하고 변형한 정보를 받는 피동자이고, AI는 인간이 만든 피동자인 동시에 정보를 왜곡하고 악용하는 행위자이다.

기준표가 연결 항목에서 요구한 양방향 관계예요. 이 문장이 있어야 '동등한 정보적 존재자'라는 앞 문장에 근거가 생겨요.

● 독해 **(2) 피동자가 책임을 묻는다는 점 넣기**

~~둘째, 나그네는 개와 이가 그 자체로 가지는 내재적 가치를 보지 못한다.~~

> 둘째, 나그네는 개와 이가 그 자체로 가지는 내재적 가치를 보지 못한다. 개와 이는 '죽임'을 받는 피동자로서 행위자인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관점에서는 유일한 도덕적 행위자로 자처해 온 인간의 위상도 재고되어야 한다.

인간중심 비판은 8점으로 가장 커요. 책임과 인간의 위상을 넣으면 이 항목이 거의 채워져요.



점수 한눈에



문제 1		23 / 30
문제 2		21 / 30
문제 3		28 / 40

문제 2와 문제 3에서 가장 많은 점수가 빠졌어요.

문제 1은 23점이에요. [가]의 추상화·일반화가 빠지고 SF를 현실과 상관없는 세계로 읽었어요. 문제 2는 21점이에요. 화자의 몸이 '또 다른 전쟁터'라는 해석이 빠져 배점이 가장 큰 미적 효과 항목에서 8점을 잃었어요. 문제 3은 28점이에요. 인간과 AI가 서로 행위자이자 피동자라는 점과 피동자가 책임을 묻는다는 점이 빠졌어요. 이 세 곳부터 채우면 점수를 가장 많이 되찾아요.



라이딧 예시답안 · 문제 1

라이딧 예시답안

제시문 [가]의 예술가와 [나]의 작가는 익숙함에 길든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현실을 더 넓고 깊이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는 방향과 방식은 다르다.

[가]에 따르면 인간은 '삶에의 주의'에 따라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한다. 지각에서는 사물을 범주화하여 개별자의 고유한 질감을 지우고, 인식에서는 추상화와 일반화를 거치며 개체의 차이와 특이성을 배제하거나 변형한다. 유용성의 논리에 따른 이 왜곡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접하면서도 그 많은 부분을 경험하지 못한다. 예술가는 '정신의 주의'로 과거 경험의 세부를 간직한 '탁월한 기억'을 불러내고, 주의의 전향을 끊임없이 시도하여 시각에 포착된 상 이면의 모습과 음향 너머의 소리를 붙잡는다. 이렇게 발견한 세계는 허구가 아니라 우리 경험에서 배제되어 있던 실재이며, 예술가는 이를 드러내어 사람들의 지각 기능을 확장한다.

[나]의 수빈은 SF 문학을 '인지적 낯섦'의 문학으로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인지와 낯섦은 반대의 위치에 있다. 인지는 경험을 통해 아는 익숙함이고, 낯섦은 경험하지 못한 것에서 오기 때문이다. SF 작가는 현재 과학 기술로 이해할 수 있는 경험적 환경, 곧 모두에게 익숙한 현실을 바탕으로 그에 대안이 되는 상상의 틀을 고안한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처럼 경험한 적 없는 장치는 독자에게 낯섦을 일으키고, 이 낯섦은 당연하게 여기던 현실에 대한 낯섦으로 이어진다. 작가는 인지와 낯섦을 함께 갖춘 작품으로 독자가 현실을 보는 다른 시각을 갖게 한다.

두 행위는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다루는 대상이 다르다. 예술가는 현실에 이미 있으나 지각에서 빠져 있던 것을 찾아내고, SF 작가는 현실에 없는 것을 상상으로 만들어 낸다. 예술가의 행위가 발견이라면 SF 작가의 행위는 고안이다. 둘째, 현실에 이르는 경로가 다르다. 예술가는 현실의 이면으로 곧바로 파고들어 감각이 놓친 세부를 되살리지만, SF 작가는 낯선 허구의 세계를 거쳐 그 낯섦을 현실로 되돌린다. 셋째, 수용자에게 일으키는 변화가 다르다. 예술가는 범주와 개념에 가려 있던 개별적 실재를 보게 하여 지각의 폭을 넓히고, SF 작가는 익숙한 현실 전체를 낯설게 하여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다. 요컨대 예술가는 현실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SF 작가는 현실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방식으로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다.



라이딧 예시답안 · 문제 2

라이딧 예시답안

제시문 [다]에서 하먼은 객체를 내부 구성 요소나 외부에 미치는 효과로 환원해 설명하는 것을 지식으로, 어느 쪽으로도 환원하지 않고 객체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인지 활동을 예술로 본다. 예술의 아름다움은 은유로 나타난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같은 직서적 표현은 지각으로 쉽게 파악되는 성질만 전달하므로 미적 효과가 없다. 반면 "교사는 양초이다."에서는 교사를 생각할 때 떠올리지 않던 양초의 성질이 교사와 결합하여, 환원으로 표현할 수도 지각으로 파악할 수도 없는 객체가 생겨난다. 독자는 객체와 성질 사이의 긴장 속에서 유추로 그 의미를 파악하려 애쓰고, 이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라]의 앞부분은 통증을 대체로 직서적으로 기술한다. 율포 싸움에서 총을 맞은 어깨가 장마 때 결리고, 허리의 통증이 신경을 타고 발가락 끝까지 내려간다는 서술은 통증을 원인이 된 사건과 몸의 구성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지식에 가깝다. 그런데 [A]에서 화자는 뼛속을 드나드는 바람을 "임금의 숨결이며 기침 소리"로 느끼고, "내 어깨에는 적이 들어와 살았고, 허리와 무릎에는 임금이 들어와 살았다"고 말하며, 마침내 자기 몸을 "적과 임금이 동거하는 내 몸"이라 부른다. 몸이나 통증을 생각할 때 떠올리지 않는, 누군가가 그 안에 들어와 산다는 성질이 몸과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된 몸은 적탄과 형장이라는 원인으로도, 뼈와 신경이라는 구성으로도 환원되지 않으며 지각으로 곧바로 파악되지도 않는 객체가 된다.

독자는 이 긴장을 풀기 위해 유추한다. 서로 맞서야 할 적과 화자가 섬기는 임금이 한 몸에 산다는 것은 모순이다. 화자를 형틀에 묶어 매질한 것은 지켜야 했던 임금이고, 임금이 그를 풀어 준 것도 적이 다시 바다를 건너오리라는 풍문 때문이었으니 그를 살린 것은 결국 적이다. 그래서 화자의 몸은 왜구와 내부의 적인 임금이 함께 사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된다. 활을 당길 때마다 어깨의 적을, 몸을 돌릴 때마다 허리와 무릎의 임금을 느낀다는 서술은 그가 적과 싸우는 모든 순간에도 자신을 죽일 수 있었던 임금을 함께 짊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A]의 은유는 독자가 유추를 통해 스스로 의미를 찾게 하고,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독자는 적과 임금이 한 몸에 산다는 모순적 긴장 속에서, 화자의 몸이 전쟁과 임금과의 갈등이 끝나지 않은 또 다른 전쟁터이며 화자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함께 짊어진 비극적인 존재임을 깨닫는다.



라이딧 예시답안 · 문제 3

라이딧 예시답안

(1)

인공 지능 이전의 정보 기술은 인간이 지시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였다. 그러나 인공 지능이 인간의 지식에 미치는 영향은 역설적이다. 인공 지능 매개체는 인간의 정신만으로는 상상하지 못한 방대한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하지만, 바로 이 능력이 조작과 오류를 키울 수 있다. 인공 지능은 개인의 선호와 본능에 맞추어 스스로를 조정함으로써 전통적 선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이용하고, 제작자나 사용자가 바라는 반응을 끌어낸다. 또한 기술적으로 인간의 통제 아래 있더라도 내재된 편견을 증폭할 수 있다. 시장 경쟁 때문에 소셜 미디어와 검색 엔진은 사용자가 가장 끌릴 정보를 우선 제시하고, 그 결과 현실을 고르게 반영하는 모습이 왜곡된다. 19세기와 20세기의 기술이 정보의 생산과 전파 속도를 높였다면, 오늘날에는 인공 지능이 전파 과정에 결합하면서 정보 자체가 변형되고 있다. 결국 인간에게 맞추려는 인공 지능이 역설적으로 인간의 지식을 변질시킨다는 경고이다.

[마]의 플로리디에 따르면 오늘날 인간은 독립적 주체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정보적 유기체인 인포그이며, 다른 생물과 공학적 인공물과 함께 정보로 이루어진 인포스피어를 공유한다. 이 안에서 인간과 기술은 주체와 객체가 아니라 동등한 정보적 존재자이다. 정보적 존재자는 행위를 보내는 행위자와 그 행위를 받는 피동자로 나뉘며, 피동자에는 인격체나 생물뿐 아니라 기술이나 인공물도 포함된다. 그리고 모든 정보적 존재자는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이 개념으로 보면 [바]의 인간과 인공 지능은 명령하는 주체와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의 관계가 아니다. 인간은 인공 지능을 만들고 사용하는 행위자로서 그 속에 자신의 선호와 편견을 담고, 인공 지능은 인간이 만든 생산물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행위를 받는 피동자이다. 동시에 인공 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개인의 선호에 맞추어 정보를 골라 제시함으로써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자로 작동하고, 인간은 그 정보를 받아들이며 감정과 판단과 현실 인식에 영향을 받는 피동자가 된다. 인간과 인공 지능은 서로에게 행위자이자 피동자로서 동등하게 얽혀 있다.

[바]가 지적한 역설도 이 관계에서 비롯된다. 인간 역시 정보로 이루어진 인포그이므로, 인공 지능이 정보를 바꾸면 인간의 지식과 판단도 함께 바뀐다. 인공 지능이 기술적으로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도 편견이 증폭된다는 [바]의 경고는, 인간을 세계의 중심이자 기술의 입법자로 보는 주체 중심의 이해가 더는 현실에 맞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인공 지능을 인간이 마음대로 부리는 도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인포스피어를 이루며 인간을 변화시키는 정보적 존재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라이딧 예시답안 · 문제 3

라이딧 예시답안

[마]의 피동자 중심 윤리학에 따르면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는 정보적이라는 점에서 동등하다. 행위를 받는 피동자는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어도 행위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로서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이 윤리학은 행위자의 우선성을 부인하고 피동자의 관점에서 도덕을 설명한다.

[사]의 나그네는 개가 몽둥이에 맞아 죽는 광경을 보고 마음이 아파 개고기와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러나 이가 불에 타 죽는 것을 예로 들자, 이는 미물이니 '덩그렇게 크고 육중한 짐승'의 죽음과 견줄 수 없다고 반발한다. 이 견해는 피동자 중심 윤리학의 관점에서 두 가지로 비판된다.

첫째, 나그네는 외양에 따라 생명을 차별한다. [사]의 '나'가 말하듯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모두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한다는 점에서 같고, [마]의 관점에서도 개와 이는 모두 정보적 존재자로서 동등하다. 그런데 나그네는 크고 육중한 짐승인 개와 미물인 이의 죽음을 겉모습에 따라 다르게 본다.

둘째, 나그네는 인간중심적 사고에 갇혀 개와 이의 내재적 가치를 보지 못한다. 그가 개의 죽음을 문제 삼은 까닭은 그 광경이 참혹하여 자기 마음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동자 중심 윤리학에서 개와 이는 '죽임'이라는 행위를 받는 피동자로서 행위자인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 관점에서는 유일한 도덕적 행위자로 자처해 온 인간의 위상도 피동자 중심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나그네는 인간 쪽의 감정에만 관심을 둘 뿐 개와 이 자체의 내재적 가치는 보지 않는다.

결국 나그네는 생명이라는 본질적 요소에 착안하지 않은 채 단지 외양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는 점, 인간중심적 사고에 갇혀 개별 존재자의 내재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